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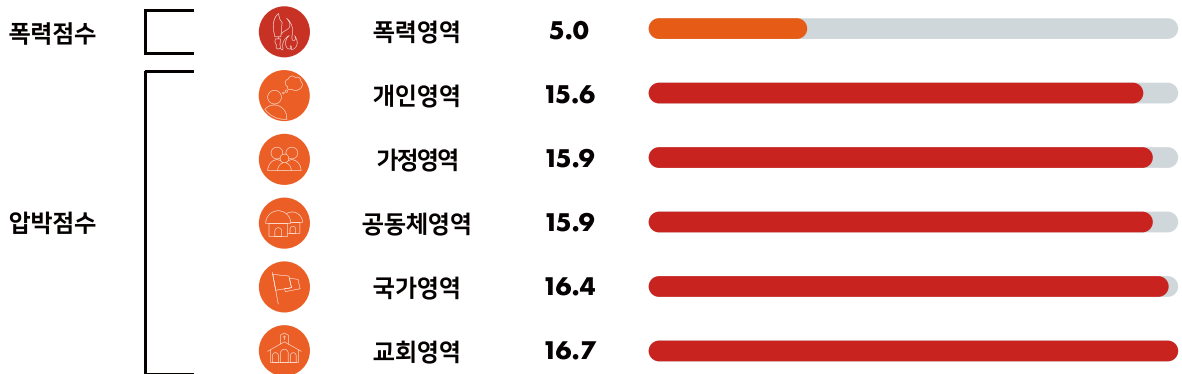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기독교 박해지수
10 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며,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할 수 없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며, 현행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개종 사실이 발각되면, 기독교 개종자들은 그 나라를 떠나야 한다. 가족, 씨족 또는 부족은 '명예'를 지켜야하며 알려진 개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한 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거나 숨어 지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은 기독교인들과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여성들은 다시 한번 집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хун드자다

인구 : 43,373,000 명

기독교인 수 : 수 천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신정 정부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수 천명	-

OD 추정치

아프가니스탄은 40년 넘게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경제, 사회 구조가 폐허가 되고 이슬람의 급진화, 범죄 활동,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국토의 약 4분의 3을 장악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고 여아의 중등교육을 금지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가혹한 해석을 다시 도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심지어 부유한 사람들조차도)은 경제 붕괴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부들은 아편과 같은 불법 마약에 수입원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탈레반은 엄격한 새 법에 따라 아편 양귀비의 모든 재배를 금지했다. 아편 저장고가 텅텅 비기 시작하면서 금지령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다.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받아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것이 탈레반의 공식 입장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규모 기독교인들은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로 피난처를 찾거나, 숨어 지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탈레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엄격

한 이슬람 샤리아 율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다양한 탈레반 분파 간의 내분 가능성과 이슬람 국가- 호라산 주(ISKP)와 탈레반의 전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 발전 및/또는 여성, 소수자 또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압력 단체는 국가의 정치 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법치주의, 정치 참여 또는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집단은 국제 사회의 대리인으로 의심을 받으며 서구 세력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의심받는다. 이들은 또한 종종 '불신자'로 분류된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서구의 비정부 기구 (NGO), 특히 몇 안 되는 기독교 관련 단체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탈레반은 구 정권의 "협력자"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또 일부는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하며 표적 제거해왔다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적 고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베이징 주재 탈레반 대사가 제출한 신임장을 수락함으로써 탈레반이 임명한 외교관을 받아들였다. 인도 역시 탈레반과의 외교 관계를 점차 개선해 가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완전한 인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2024년 6월 30일과 7월 1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대표단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 참석했고, 이는 이들이 처음으로 2022-2031년 최빈국을 위한 도하 행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례

가 되었다. 이 회의는 또한 유엔이 탈레반의 요구를 처음으로 수용한 자리이기도 했는데, 탈레반은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정당한 목소리이자 합법 정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0년대 탈레반의 정책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그 대표적인 예로는, 여성에 대한 형벌로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재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던 국제 원조가 줄어들면서, 여러 병원이 폐쇄되어야 했고, 유엔도 자국 내 프로그램을 두 차례 축소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상황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통제와 감독은 대부분의 도시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나 카불과 같은 도시에서도 CCTV 감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도처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비정부기구(NGO)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직원들을 파견하기 시작하고 있다. 보안 상황이 다소 나아짐에 따라, 외국인 주재원들은 더 이상 철저히 통제된 구역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여,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고립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세계감시목록(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발각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세계감시목록(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적 억압과 독재적 편집증의 결합

아프가니스탄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변절로 간주되어 가족과 공동체에 수치를 안긴다고 여겨진다. 개종자들은 무슬림 종교 지도자, 지역 당국, 가족 등으로부터의 폭력을 두려워하여 신앙을 숨긴다. 탈레반은 자주 모스크에 출석할 것을 강조한다. IS계열 단체(ISKP 등)가 사용하는 극단적 폭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거나 피난하게 만들었다.

씨족 억압과 민족·종교적 적대의 결합

아프간의 가족 구조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개종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국가의 이슬람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개종자에게 전통 규범으로 돌아오도록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 특히 기독교는 서구적이며 아프간의 문화, 사회, 이슬람에 적대적인 종교로 인식된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아프가니스탄 국내총생산(GDP)의 80%가 비공식 부문에서 발생한다. 부패와 범죄는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다. 양귀비와 같은 불법 작물 재배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 수익성이 높다. 이러한 양귀비 재배 수익은 무장 단체와 부패 구조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는 특히 사회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2021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여성 인권의 발전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여성은 오랫동안 2등 시민으로 여겨져 왔으나, 탈레반의 통치 하에서는 그에 더해 추가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여학생들의 학교 출석은 제한되고 있으며, 여성은 직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대부분 이를 비밀로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 자택 감금, 강제 결혼, 성폭행 등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명예-수치 문화와 입법적 정의의 부재로 인해, 여성 기독교인은 학대를 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탈레반은 남성들에게 하루 다섯 번 기도하고, 모스크에 참석하며, 금식을 하고, '적절한' 수염을 기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모범적인 무슬림 가장으로 보이도록 압박을 가한다.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다고 의심만 받아도, 기독교인 남성은 조롱, 투옥, 고문, 성적 학대,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해야 한다. 결혼한 개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가 강제로 분리되거나, 강제 퇴거, 정신병원 수용, 투옥 등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기독교인 남성, 특히 개종자들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하며, 일부는 직장에서 주목받지 않기 위해 낮은 직위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정부에 의한 투옥
- 신체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언어적 폭력
- 사망 (신앙으로 인한)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0	85
2024	10	84
2023	9	84
2022	1	98
2021	2	94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매우 암울한 상태다. 전체적인 압박 수준은 약간 상승했는데, 특히 '공동체 영역'에서의 압박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폭력 점수도 0.4만큼 상승했으며, 이는 2025년 세계감시목록(WWL) 점수 산정 시 살해 사건 3건을 반영한 데 반해, 2024년에는 2건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폭력 점수는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는 살해나 교회에 대한 공격 사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가 깊이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탈레반 당국이 탄압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외형적 표현이 많지 않다. 그 결과 당국이 교회를 '짓밟을' 기회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Alamy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상의 이유로, 이곳에는 어떠한 세부사항도 공개할 수 없다.

개인 영역

밀접하게 얽힌 부족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해 사회적 통제가 매우 강하며, 개종자들은 발각될 위험이 크다. 탈레반이 전국을 장악하기 이전에도 통제 지역 내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강제로 시행하자, 많은 개종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가족 영역

이슬람에서 개종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체포되거나 집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가 기독교인일 경우 이혼하거나 결혼을 무효화하라는 강한 압박이 가해진다. 탈레반 정부는 자녀를 무슬림으로 양육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무슬림인 척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복장 규정을 따르고, 모스크에 참석하며, 수염을 기르는 등 무슬림처럼 행동해야 한다. 기독교인 여성이 머리 덮개를 쓰지 않으면 주목을 받게 되고, 지역 주민들은 이를 강제로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가능한 국외로 떠나고 있다.

국가 영역

현재 탈레반에 의해 중지된 헌법은, 타 종교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조에서는 어떤 법률도 이슬람의 교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여러 영역에서 제약이 발생하였다. 개종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 이는 샤리아법을 시행하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탈레반 치하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의 여행이 감시되며, 여행의 목적이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종종 제지된다. 탈레반은 빈번한 급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교회 영역

모든 기독교 모임은 지하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겉으로는 단지 식사를 함께하는 모임처럼 보일 수 있다. 모든 기독교 관련 자료는 숨겨져 있으며,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공유하는 것도 추적당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오픈도어의 현장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관련 자료, 특히 성경을 소지한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러한 자료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아프가니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아프가니스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의심만으로도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6조)
- 여성 개종자들은 강제로 결혼당하고, 신앙을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ICCPR 제23조 3항, CEDAW 제16조)
- 아프간 국민은 무슬림으로 간주되며, 종교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종교적 이미지나 상징도 표시할 수 없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는 이슬람 계율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이슬람 교육을 받는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수의 시크교, 힌두교, 바하이 신자들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들의 유일한 이점은 '서구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IRFR)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소수 종교 집단들은 탈레반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자신들의 법적 문제를 법원에 제소할 경우, 탈레반이 임명한 판사들에 의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은 전국의 모든 학교,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시아파 율법 교육을 전면 금지하였다. 탈레반은 새로 조직된 각 지방의 율레마 평의회(Ulema Councils)에 수백 명의 기존 이맘(imam)들을 해임하고, 탈레반이 승인한 이맘들로 교체하였다.



오픈도어의 아프가니스탄 사역

오픈도어의 파트너와 조력자들에게 가해지는 위험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